

부산항, 친환경 연료공급으로

항만 경쟁력을 높인다!

- 국내 최초 LNG 추진 컨테이너 선박 벙커링 및 하역 동시작업 실증 성공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8월 8일(목) 부산신항에서 국내 최초로 LNG 추진 컨테이너 선박에 ‘선박 대 선박’(ship to ship, STS) 방식의 ‘LNG 선박 공급(이하 “벙커링”) 및 하역 동시작업’ 실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국제 해운의 선박연료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의 운항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로 해외 주요 항만에서는 LNG 벙커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하역과 연료공급을 동시에 작업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에, ‘동시작업 방식의 LNG 벙커링’ 가능 여부는 항만과 선박연료공급산업 경쟁력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척도가 될 수 있다.

* LNG 벙커링 동시작업 최초 시행 : 헬싱키항(‘19.9), 싱가포르항(‘21.3), 상하이항(‘22.3)

우리 정부는 그동안 ‘LNG 벙커링 동시작업 기술개발 R&D*’를 추진하여 LNG 벙커링 기술개발과 안전성 확보에 힘써왔다. 또한, 광양항에서 벌크선 LNG 벙커링·동시작업 실증(‘23.10)과 부산항에서 2차례 자동차운반선 실증**을 통해 관련 실적과 노하우를 축적하였다.

* LNG벙커링 동시작업 기술개발 R&D(‘23~’27, 65억 원)

** ‘24.2.13~14, ‘24.2.17~18 / 부산항 북항 감만부두 / MOL 자동차운반선 2척 / STS(Ship to Ship), 비동시작업(벙커링만 수행)

이번 실증은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 선사, 하역사, 항만운영사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8월 8일(목) 부산항 신항 5부두에서 실시되었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실시된 LNG 벙커링·하역 동시작업 실증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선박입출항료를 면제하고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을 통해 하역-LNG 벙커링 동시작업 관련 안전 제도를 점검하였다.

* ‘항만 내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실증’ 사업자로 지정된 한국엘에너지벙커링(주)의 벙커링 전용선이 LNG 270톤을 아시아-일본 항로 컨테이너선(CMA CGM, 2,000TEU급)에 공급

이번 실증을 통해 부산항은 국제적으로 수요가 높은 LNG 추진 컨테이너 선박의 벙커링과 컨테이너 하역 동시 작업이 가능함을 입증하였고, 글로벌 선사의 국내 기항과 부산항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친환경 선박연료로 각광받고 있는 메탄올, 암모니아의 벙커링 절차를 개발하기 위한 R&D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실증작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 선박의 벙커링하역 동시작업 실증(부산항)과 암모니아 벙커링 실증(울산항)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항만의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역량은 향후 항만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지표로 작용할 전망이다.”라며 "이번 실증은 국내 항만 산업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앞으로도 국내 항만의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역량 강화와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해운물류국	책임자	과 장	최문건 (044-200-5770)
	항만물류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김상현 (044-200-5773)
담당 부서	부산항만공사	책임자	부 장	정평교 (051-999-2160)
	탄소중립사업부	담당자	대 리	이영석 (051-999-2166)

대한민국

지자체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